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LIS Employment Prospects: LIS Students' Perspective

노영희 (Younghee Noh)**, 안인자 (In-Ja Ahn)***
이종문 (Jongmoon Lee)****, 오세훈 (Se-Hoon Oh)*****

목 차

- | | |
|---------------|------------|
| 1. 서론 | 4. 결과 |
| 2. 선행연구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 |

초 록

도서관의 인력은 도서관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고, 도서관의 수준은 한 나라의 지적 역량을 가능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서직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도서관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비율이 40%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들은 사서직 고용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취업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설문응답자가 희망하는 업무로 '문화프로그램 등 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교육과정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진로지도와 취업멘토링, 인턴십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넷째, 학생들은 학업성적, 어학능력, 각종 자격증 취득, 인턴 및 실습, 경력관리를 매우 중요한 취업요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들의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직·환경적 요인은 보수와 복리후생, 자기발전 기회부여, 근무조건과 조직문화, 조직의 발전가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적성, 취업분야 지식 및 기술 수준, 사회적 대우 및 인식, 전공일치여부, 직장과의 거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ower of human capital in a library is the main resource that determines the level of library services, which in turn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forming the intellectual power of the country. This research conducted a survey on the employment perspectives of LIS undergraduates, which result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LIS undergraduates, 40% of students responded that their desire was to be employed in the library as librarians. Although there were some negative opinions regard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industry, the undergraduates appreciated the developmental possibilities. Second, the most desired task was working with cultural programs. Third,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curriculum overall, acknowledging the extra need for job search support programs, which include career support, employment-related mentoring, and internships. Fourth, the main requirements for their future employability were perceived as grade point average, language skills, obtaining licenses, internship and apprenticeship experience, and career management. Fifth, influential factors on employment decision making were divided into two aspects: environmental and personal factors. The environmental factors included salary, welfare, opportunities in personal development, workplace environment, organizational culture, and development possibilities of the organization. The personal factors included fitness with personal aptitude, the level of knowledge and technology in the job industry, social norms and acknowledgement, rewarding opportunities with their major, and location of job.

키워드: 문헌정보학과, 사서직, 고용실태, 취업전망, 학생인식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LIS Students' Perspective, LIS Employment Prospects, Employment Pattern, Employment Status

* 본 연구는 2013년에 수행된 [사서직 취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음.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동원대학교 아동문헌정보과 교수(ijahn@dongwon.ac.kr) (교신저자)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mlee@ks.ac.kr)

***** 광운대학교 사서(atom@kw.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10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1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143-167,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4.143>)

1. 서론

1931년에 조선교육회가 주관한 제1회 강습회가 열리면서 근대식 사서교육이 시작된 이후, 2013년 현재 4년제 34개 대학교와 7개 전문대학에 문헌정보과 및 심화과정이 개설되어 학부(학사, 준학사)에서 사서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 29개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 21개 일반대학원에 박사과정, 13개 교육대학원에 석사과정(사서교육 또는 문헌정보교육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정규 대학과정 이외에도 3개의 대학부설 사서교육원과 학점은행제, 전문대학교를 통해 사서가 양성되고 있다.

양성인원을 보면, 1966년부터 2012년까지 75,780명이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자격유형별로는 1급 정사서가 1,992명(2.6%), 2급 정사서가 44,282명(58.4%), 준사서가 29,536명(40.4%)이 배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간 평균 2,444명의 사서가 양성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452명, 여자 1,992명이며, 자격증 유형별로는 1급 정사서 113명, 2급 정사서 1,606명, 준사서 72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정현태, 김지홍, 송재술 2010).

이러한 사서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1년 현재 공공도서관은 871개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읍·면·동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 수가 1개 시·군·구 당 평균 1개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직원의 수도 도서관법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수의 사서를 배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1관 당 직원 수가 평균 8.40명에 불과

하다.

반면에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모든 학교와 대학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설치율이 높다. 그렇지만 1관 당 평균 직원 수를 보면 학교도서관은 0.36명, 대학도서관은 5.95명에 불과하다. 전문도서관의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조직체의 수와 달리 도서관 수가 595개관에 불과하다. 1관 당 직원 수 또한 0.63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도서관 수와 직원 수 모두에서 문제가 있고,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외견상으로는 모든 학교와 대학에 도서관을 갖추고 있으나, 직원 배치 수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문헌정보학과 졸업자의 진로, 양성방안, 고용시장 분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도서관 사서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현장수요 반영 정도에 대한 연구, 세계적인 수준의 도서관 환경 구현을 위한 세계 환경 분석 및 국내 도서관 건립제안, 문헌정보학 졸업자의 진로다양성 확보 방안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도서관이나 정보산업에 진출할 학생들의 취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의 취업전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취업전망이나 취업현황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된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조사에 의한 졸업자의 취업실태분석 및 취업전망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구인광고분석에 의한 연구, 설문조사 연구, 통계분석자료에 의한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구인사이트에 나타난 구인광고분석을 통해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취업현황을 분석한 연구로, 김지홍(2006)은 '사서e마을'에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게재된 사서 정규직 모집공고를 중심으로 사서직 취업진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공고가 많았던 곳은 공공도서관으로 전체 1,638명 중 760명(46.4%)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업체가 277명(16.9%), 학교도서관 214명(13.1%), 전문도서관 201명(12.3%), 대학도서관 120명(7.3%) 순으로 나타났다.

정우영과 한승희(2008)는 '사서e-마을' 구인광고 분석(2007년 1월 1일~12월 31일) 등을 통해 정보 전문직의 취업진로 분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문직을 모집하는 핵심 분야는 도서관 정보센터 사서직, 정보관리업무, 도서관 관련업체, 출판, 교육 분야, 관련기술 분야 등으로 파악되었다.

Matarazzo와 Clarke(2008)는 *New England Jobline*이라는 민간회사의 도서관정보센터에 게재된 직무구인광고를 분석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서직의 직무분야 및 LIS 주제 분야의 요구도 변화추이를 제시하였다. Shank(2006)는 세 가지 정기간행물(*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ews, Library Journal,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과 웹사이트(*Educause*)에 게재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구인광고를 분석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서의 직책을 조사한 뒤 10개의 직책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고, 직책의 자격과 책무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취업현황을 분석한 연구로, Simon과 Taylor(2011)는 Aberystwyth University의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학생들(2005년에서 2010년까지 교육받은 학부생들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직장과 전공 선택 동기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생각과 전문가가 되려는 소망이 결부되어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ombes 등(2011)은 호주에서 문헌정보학과와 관련된 교육 경험이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과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4가지 주제(배움의 기회, 배우는 사람의 속성, 배움의 경험, 배움의 결과)를 통해 조사하고, 졸업생들의 직장취업경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졸업생들은 문헌정보학 관련 직종에 종사하기까지 졸업 후 다양한 직장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rrach와 Ameen(2010)은 파키스탄 펀잡 대학교의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졸업생들의 취업실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LIS 졸업생들은 가족의 추천과 더 나은 직업의 미래, 책과 독서에 대한 애정으로 사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rs(1994)는 대니쉬 학생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업무 선호도 등을 조사한 결과, 업무(진로)에 대한 성공의 기회가 학교에서 선택된 전문분야와 관련 있다고 하였다.

한편, 문헌정보학 분야를 포함하여 국내외에

서 문헌정보학의 진로, 직업전망, 취업현황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데이터들이 분석되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취업현황이나 요구되는 능력 및 자질 등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Zhang(2008)는 1966년부터 2006년까지의 통계경향 분석을 통해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사서에게 요구되는 외국어능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외국어능력의 요구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Library Journal*에서는 진로, 급여, 직위 등을 핵심 항목으로 설정하여, 매년 문헌정보학전공 졸업자들의 취업현황을 조사하고 있다(Maatta 2011). 이 저널의 'Placements & Salaries Survey 2010'에서 나타난 취업현황을 보면, 도서관 관련 직업에 취업한 졸업생은 약 86.5%이며, 정규직에 취업한 졸업자는 59.2%(2007년 75.8%에서 2009년 61%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로 나타났다. 비전문직 채용률은 2008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지만 2009년 19.4%에서 2010년에는 17.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초봉은 42,556달러이며 하나의 일자리에 200명 이상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성숙(2002)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경기지역의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한 직장의 직업분야를 분류하고, 취업현황을 전공분야, 도서관분야, 전공연관 분야, 비전공분야로 구분하여 사회진출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직업분야를 구분하였다.

또한 특정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통계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국내 K

대학 학생들의 취업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헌정보학 전공학생들의 취업가능 및 취업 희망직업에 대한 인식과 취업 요건 및 준비성 실태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이종문 2009; 2012). 연구결과 문헌정보학과 학부 학생들이 진출가능하다고 한 직업은 49개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82.1%를 차지하는 1~20순위 직업에서 사서직군은 29.2%로 낮은 반면, 여타의 직업은 52.9%로 높게 나타났다(이종문 2009). 또한 2006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5년간 취업가능 졸업자 178명을 분석한 결과, K대학의 취업실태는 취업 65%, 미취업 32%, 진학 3%로 나타났다(이종문 2012).

이처럼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취업전망이나 취업현황과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큰 특징들이 나타났다. 첫째, 국내외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은 도서관 또는 지식정보를 다루는 직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도서관 관련 직업에 취업한 졸업생은 86.5%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반면, 국내의 경우 25%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연구결과는 특정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내 전체의 상황을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3.1 표집 방법 및 데이터 수집절차

사서직 취업에 대한 인식 조사는 현재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표 1〉 설문지 배포부수 및 회수율

조사영역	4년제	2년제	총
배포수	450건	50건	500건
회수건수	427건	32건	459건
회수율	94.9%	64%	79.45%

지 방식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 대상은 국내 40여개의 문헌정보학과 중 4년제와 2년제 문헌정보학과로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4년제 9개 대학, 2년제 1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각각 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주로 고학년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와 경우 2년제이므로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포부수는 500건으로 회수율은 79.45%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설문지의 표지(cover letter)에는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자가 표본으로 추출되었음을 알리는 간단한 문장을 포함시켰다. 설문지가 들어있는 발송용 봉투의 수신자란에는 표본으로 추출된 소속기관명을 기재하여 설문지가 조사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발송은 2013년 4월 22일에 이루어졌으며, 5월 20일에 마감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문항별로 코딩되었다. 일차로 코딩된 데이터는 정확성을 위해 재차 설문지 원본과 대조하는 검토과정을 거쳐 집단별로 각각 하나씩, 총 두 개의 데이터 파일이 완성되었다.

3.2 설문 내용과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의 문항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논문의 설문문항 구성을 참조함으로써 설문개발을 하였다.

첫째,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취업희망 직장 및 준비도에 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장으로 생각되는 곳, 취업하고 싶은 분야, 직장에서 하고 싶은 업무를 조사하였다. 또한 희망 직업에 진출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학의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취업을 위해 소속대학이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본인이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요건,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하는 노력, 취업준비 정도,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 희망 최초 연봉, 소속대학 거주지, 가족이 함께하는 현 거주지, 취업하고 싶은 지역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래의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 직장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현재의 사서직 고용환경, 향후 사서직의 취업전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취업희망 직장 및 준비도	문헌정보학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직장으로 생각하는 곳
	취업하고 싶은 분야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희망 직업에 진출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학의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소속 학교에서 취업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요건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출하고자 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지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최초 연봉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소속 대학 거주지는 어디인지
	현 주소지(가족이 거주하시는 곳)는 어디인지
어느 지역으로 취업하고 싶은지	
직업선택에 관한 질문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래의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서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의 사서직 고용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사서직의 취업 전망은 어떻다고 예측하는지	
개인적 배경	성별, 학년, 복수전공 여부 및 복수전공의 전공분야, 취득예정 자격증

최종적으로 모두 3개 조사영역, 24개의 조사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구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A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문항 각각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를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과 2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4. 결 과

4.1 설문응답자의 배경

4.1.1 설문응답자의 성별분포

설문응답자는 총 459명으로 남자는 131명(28.5%), 여자는 328명(71.5%)으로서 남녀성비는 3:7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설문응답자의 성별분포

남자		여자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1	28.5	328	71.5	459	100

4.1.2 설문응답자의 학년분포

설문응답자의 학년분포를 보았을 때 1학년 3명(0.7%), 2학년 128명(27.9%), 3학년 205명(44.7%), 4학년 123명(26.8%)으로 나타났다. 2학년의 경우 30명은 전문대학교 학생이며, 1학년 빈도가 낮은 것은 당초에 설문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자 하였기 때문이다(〈표 4〉 참조).

〈표 4〉 설문응답자의 학년분포

학년	빈도	비율(%)
1학년	3	0.7
2학년	128	27.9
3학년	205	44.7
4학년	123	26.8
합계	459	100

4.1.3 설문응답자의 다(多)전공 여부

설문응답자의 다전공(복수전공)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설문응답자의 137명(29.8%)이 다전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설문응답자의 다전공 여부

그렇다		아니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7	29.8	321	69.9

다전공을 하고 있는 설문응답자의 다전공학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보육'이 2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학' 14명, '사회복지학' 12명, '신문방송학/언론미디어학/언론정보학' 11명, '경제학' 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동원대학교가 아동문헌정보과로서 전원이 보육을 복수전공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6〉 참조).

〈표 6〉 설문응답자의 다전공 학과 종류

학과 종류	빈도	비율
경영학	14	10.22
경제학	7	5.11
교육학	5	3.65
국어국문학	5	3.65
국제관계학	1	0.73
국제통상학	3	2.19
독어독문학	1	0.73
동화미디어콘텐츠학	1	0.73
디지털콘텐츠미디어학	1	0.73
무역학	1	0.73
문예창작학	2	1.46
법학	1	0.73
보육	26	18.98
불어불문학	2	1.46
사회복지학	12	8.76
사회학	2	1.46
생명과학	2	1.46
생활디자인학	1	0.73
서예문자예술학	1	0.73
세무학	2	1.46
소비자 생활정보학	1	0.73
소프트웨어공학	2	1.46
식물생물공학	1	0.73
신문방송학(8)/언론미디어학(2)/언론정보학(1)	11	8.03
실무영어	1	0.73
심리학	4	2.92
아동문헌	2	1.46
역사학	1	0.73
영어영문학	4	2.92
융합보안학	1	0.73
일어일문학	1	0.73
전기공학	1	0.73
정치외교	3	2.19
중어중문학	1	0.73
청소년학	1	0.73
컴퓨터공학	3	2.19
통계학	3	2.19
한국어문학	1	0.73
행정학	5	3.65
합계	137	100.00

4.1.4 설문응답자의 졸업 후 취득 자격증

설문응답자가 졸업 후 취득하게 될 자격증이 무엇인지 조사하였으며, 2급 정사서는 423명(92.1%), 준사서는 32명(7.0%), 기타 자격증은 4명(0.9%)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설문응답자의 졸업 후 취득 자격증

자격증 종류	빈도	비율(%)
2급 정사서	423	92.1
준사서	32	7.0
기타	4	0.9
합계	459	100

4.2 취업희망 직장 및 준비도

4.2.1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출 가능분야 및 희망분야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각각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공공도서관'이 455명(9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대학도서관' 453명(98.7%), '국가도서관' 448명(97.6%), '학교도서관' 437명(95.2%), '전문도서관(연구소자료실포함)' 423명(9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가 진출하고 싶은 분야로는 '공공도서관'이 233명(5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도서관' 198명(43.1%), '국가도서관' 191명(41.6%), '포털업체' 98명(21.4%), '학교도서관' 90명(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하고 싶은 분야로 '대학교(조교)'와 'MARC 전문업체', '도서관용품 및 비품업체'는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표 8> 참조).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기타분야로는 신문사와 방송국을 포함한 '언론사'가 4

<표 8>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출 가능분야 및 희망분야(복수 응답)

분야	진출 가능분야		진출 희망분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가도서관	448	97.6	191	41.6
대학도서관	453	98.7	198	43.1
공공도서관	455	99.1	233	50.8
학교도서관	437	95.2	90	19.6
전문도서관(연구소자료실포함)	423	92.2	78	17
국가수준 유통기관(KERIS, KISTI 등)	379	82.6	63	13.7
대학교(교수 및 연구원)	408	88.9	36	7.8
대학교(조교)	412	89.8	6	1.3
기록관 및 기록물 자료실	420	91.5	75	16.3
DB구축 및 콘텐츠개발업체	400	87.1	58	12.6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업체	386	84.1	10	2.2
MARC 전문업체	390	85	6	1.3
대행사(저널,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관)	379	82.6	24	5.2
서점(온·오프라인 서점 포함)	377	82.1	50	10.9
출판사	383	83.4	87	19
포털업체	362	78.9	98	21.4
도서관용품 및 비품업체	304	66.2	1	0.2
일반회사 정보관리부분	382	83.2	61	13.3
기타	23	5	14	3.1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연구소', '금융기관', '기록관', '독서치료', '비서직', '사서직 공무원',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분야'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표 9〉 참조).

반면,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하고 싶은 기타분야로는 '공무원' 및 '기록관'이 각각 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사보안 관련 도서관', '독서치료',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분야', '언론사', '전략컨설턴트', 'PR대행사'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부 응답자들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10〉 참조).

4.2.2 설문응답자의 희망업무

설문응답자가 희망하는 업무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화프로그램 등 업무'가 160명(3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열람 및 대출업무' 152명(33.1%), '참고봉사업무' 117명(25.5%), '수서업무' 107명(23.3%), '콘텐츠 구축업무' 104명(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특히, 문화프로그램 관련 업무의 경우 대학의 소속지역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표 9〉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출 가능분야(기타)

진출 가능분야	빈도
경제연구소	1
금융기관	1
기록관	1
독서치료	1
모든 분야	1
비서직	1
사서직 공무원	1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분야	1
언론사	4
합계	12

〈표 10〉 설문응답자의 진출희망분야(기타)

진출 희망분야	빈도
공무원(사서직 1/일반직 1)	2
군사보안관련 도서관	1
기록관	2
독서치료	1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분야	1
언론사	1
전략컨설턴트	1
PR대행사	1
합계	10

〈표 11〉 설문응답자의 희망업무(복수 응답)

업무 종류	빈도	비율(%)
수서업무	107	23.3
분류목록업무	88	19.2
열람 및 대출업무	152	33.1
참고봉사업무	117	25.5
주제전문서비스 업무	80	17.4
열람실관리(야간연장 근무 등)	21	4.6
문화프로그램 등 업무	160	34.9
경영기획업무	85	18.5
영업업무	12	2.6
콘텐츠 구축업무	104	22.7
시스템관리업무	53	11.5
교육업무	80	17.4
연구업무	25	5.4
정보유통업무	41	8.9
행정업무	69	15
고객관리업무(CRM)	28	6.1
웹마스터업무	33	7.2
PM업무(프로젝트매니저)	31	6.8
관리자 업무	39	8.5
상관 없음	33	7.2
기타	3	0.7

을 볼 수 있다.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문화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문헌정보학과 및 지역의 문화프로

그램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4.2.3 대학 교육과정의 적절성

설문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과정의

〈표 12〉 지역별 문화프로그램 업무 선호도 차이(복수 응답)

지역	빈도	비율(%)
서울특별시	43	47.78
부산광역시	30	60.00
대전광역시	29	58.00
경기도	98	74.24
충청북도	25	52.08
전라북도	29	74.36
경상북도	37	75.51
유의도	0.0004	

적절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가 187명(4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적절하다' 179명(39%), '적절하지 못하다' 43명(9.4%), '잘 모르겠다' 24명(5.2%), '매우 적절하다' 16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4.2.4 대학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설문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화프로그램 관련(도서관 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등)'이 291건(6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자정보 조직 및 서비스(디지털 및 웹 정보원 및 아카이빙 포함)' 265건(57.7%), '도서관홍보마케팅' 187건(40.7%), '정보소외계층서비스(장애인 및 다문화서비스 포함)' 174건(37.9%), '웹2.0/웹3.0/e커뮤니티'

152건(33.1%), '전문사서론' 115건(3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사서론의 경우 1개 대학에 이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학생 50명은 한 건도 선택하지 않았다(〈표 14〉 참조).

도서관의 역할이 다양화됨에 따라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이에 따른 개편이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 관련(도서관 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등) 교과과정'과 '전자정보 조직 및 서비스(디지털 및 웹 정보원 및 아카이빙 포함) 교과과정' 등이 향후 교과과정 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기타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취업진로교육'이 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지털콘텐츠 제작', '실습위주의 교육', '정보학관련 심화 내용', '참고봉사관련 전문분야', '컴퓨터관련 분야', '특성과 정보

〈표 13〉 대학 교육과정의 적절성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못하다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평균	표준편차
16	3.5	179	39	187	40.7	43	9.4	8	1.7	24	5.2	3.18	1.07

〈표 14〉 대학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복수 응답)

분야	빈도	%
문화프로그램 관련(도서관 문화행사, 프로그램기획 등)	291	63.4
정보소외계층서비스(장애인 및 다문화서비스 포함)	174	37.9
전자정보 조직 및 서비스(디지털 및 웹 정보원 및 아카이빙 포함)	265	57.7
도서관홍보마케팅	187	40.7
웹2.0/웹3.0/e커뮤니티	152	33.1
도서관이용자 교육	115	25.1
전문사서론	151	32.9
기타	13	2.8

교육', '행정 및 경영', 'DB구축관련 시스템'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4.2.5 희망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문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진로지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채용정보 제공'이 351건(7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면접준비 특강' 262건(57.1%), '직무적성검사'와 '진로면담'이 각각 254건(55.3%), '자격증 준비반' 253건(5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멘토링의 경우 '현장 전문가 멘토링'이 394건(8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수 멘토링'은 208건(45.3%), '선후배간 멘토링'은 166건(36.2%)으로 나타났다.

인턴십(직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단기인턴(2-3개월[6-9학점])'이 314건(6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서실습(3-4주[2-3학점])'은 232건(50.5%), '장기인턴(6개월[15학

점 이하])'은 165건(35.9%)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설문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기타 사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취업관련 스터디'가 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격증관련 지원(특강 및 응시료)'이 3명, '교수님과과의 면담'과 '다양한 인턴기관 제공', '취업 실제 사례 제공'이 각각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2.6 진출 희망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요건

설문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진출 희망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요건에 대해 우선순위로 5가지를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인턴이나 실습'이 406건(8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인턴이나 실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 400건(87.1%), '어학능력' 392건(85.4%), '경력관리' 390건(85%),

<표 15> 설문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복수 응답)

프로그램 종류		빈도	비율(%)
진로지도 (지원)	직무적성검사	254	55.3
	채용정보 제공	351	76.5
	자격증 준비반	253	55.1
	면접준비 특강	262	57.1
	취업캠프	127	27.7
	진로면담	254	55.3
취업 멘토링	현장 전문가 멘토링	394	85.8
	교수 멘토링	208	45.3
	선후배간 멘토링	166	36.2
인턴십 (직장 프로그램)	사서실습(3-4주[2-3학점])	232	50.5
	단기인턴(2-3개월[6-9학점])	314	68.4
	장기인턴(6개월[15학점 이하])	165	35.9

‘학업성적’ 350건(7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설문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진출 희망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기타 취업요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분야에 대한 실무능력’ 및 ‘분야에 대한 지식’, ‘인맥’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경력’, ‘근성’, ‘대외활동’ 외 5가지 요건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요건에 대한 학년별 인식차이 및 다전공(복수전공) 이수여부에 따른 취업 요건에 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졸업 후에 취득하게 될 자격증에 따른 취업요건에 관한 인식 비교에서 취업요건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급 정사서는 ‘인턴이나 실습’을 통해서 현장에 나아가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준사서는 ‘경력관리’를 통해서 정사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경력을 쌓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어학능력’으로 나타남으로서, 어학에 주안점을

두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예측된다. 집단 간 인식차이는 3가지 항목에서 나타났다. ‘각종 자격증 취득’, ‘종교’, ‘별다른 준비 없음’에서 졸업 후 취득하게 될 자격증에 따라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4.2.7 희망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노력

희망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설문응답자들의 노력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적’이 359명(7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종 자격증 취득’ 324명(70.6%), ‘어학준비’ 306명(66.7%), ‘인턴이나 실습’ 178명(38.8%), ‘경력관리’ 142명(3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희망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설문응답자들의 기타 노력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동아리활동’ 및 ‘직업분야에 대한 지식습득’이 각각 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모전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능력개발’ 외 5가지 항목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표 16〉 진출 희망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요건

취업 요건	빈도	비율(%)
학업성적	350	76.3
어학능력	392	85.4
각종 자격증 취득	400	87.1
인턴이나 실습	406	88.5
경력관리	390	85.0
봉사(사회기여) 활동	171	37.3
종교	2	0.4
별다른 준비 필요 없음	15	3.3
기타	21	4.6

〈표 17〉 희망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노력

취업준비 항목	빈도	비율(%)
학업성적	359	78.2
어학준비	306	66.7
각종 자격증 취득	324	70.6
인턴이나 실습	178	38.8
경력관리	142	30.9
면접준비	85	18.5
봉사(사회기여)활동	140	30.5
종교	8	1.7
별다른 준비 없음	90	19.6
기타	13	2.8

4.2.8 설문응답자의 취업준비 정도

진출하고자 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설문 응답자들의 취업준비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분하지 못하다’가 218명(4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129명(28.1%), ‘보통이다’ 71명(15.5%), ‘전혀 하지 않았다’ 31명(6.8%), ‘매우 충분하다’와 ‘충분하다’가 각각 5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오로지 2.2%만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80% 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8〉 참조).

4.2.9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

설문응답자들이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하는 직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291명(6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정보가 없어서’ 286명(62.3%),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때문에’ 129명(28.1%), ‘적성에 맞지 않아서’ 104명(22.7%), ‘기타’ 42명(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설문응답자들이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타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업과의 병행’이 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체적인 계획 및 준비사항 미결정’ 5명, ‘진로 미결정’ 3명, ‘게으른 성격’과 ‘군입대’, ‘끈기 부족’, ‘시간 부족’이 각각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응답자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나 이를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로 생각하는 일부 응답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8〉 설문응답자의 취업준비 정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하지 못하다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전혀 하지 않았다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평균	표준 편차
5	1.1	5	1.1	71	15.5	218	47.5	129	28.1	31	6.8	2.79	0.9

〈표 19〉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복수 응답)

이유	빈도	비율(%)
취업정보가 없어서	286	62.3
적성에 맞지 않아서	104	22.7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34	7.4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때문에	129	28.1
원하는 직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	291	63.4
이미 취업할 곳이 정해졌기 때문	14	3.1
어학연수를 갈 것이기 때문	31	6.8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10	2.2
기타	42	9.2

4.2.10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초 연봉

설문응답자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초 연봉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이 159명(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47명(32%),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74명(16.1%), '기관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31명(6.8%), '3,0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 23명(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4.2.11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와 취업희망지역

설문응답자의 소속 대학 거주지는 '경기도' 132명(28.8%), '서울특별시' 91명(19.8%), '부

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각각 50명(10.9%), '경상북도' 49명(10.7%), '충청북도' 48명(10.5%), '전라북도' 39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현 주소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가 142명(3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79명(17.2%), '부산광역시' 41명(8.9%), '경상북도' 30명(6.5%), '대구광역시' 29명(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들의 취업 희망 지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가 222명(4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95명(20.7%), '부산광역시' 33명(7.2%), '대전광역시' 29명(6.3%), '대구광역시' 20명(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표 20〉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초 연봉

연봉	빈도	비율(%)
1,500만원 미만	7	1.5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47	32.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159	34.6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74	16.1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23	5.0
3,500만원 이상	13	2.8
기관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31	6.8

〈표 21〉 설문응답자의 소속대학지역 및 취업희망지역

지역	소속대학지역		거주지		취업희망지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특별시	91	19.8	79	17.2	222	48.4
부산광역시	50	10.9	41	8.9	33	7.2
대구광역시	0	0.0	29	6.3	20	4.4
인천광역시	0	0.0	16	3.5	9	2.0
대전광역시	50	10.9	19	4.1	29	6.3
광주광역시	0	0.0	4	0.9	3	0.7
울산광역시	0	0.0	4	0.9	2	0.4
세종특별자치시	0	0.0	1	0.2	2	0.4
경기도	132	28.8	142	30.9	95	20.7
강원도	0	0.0	7	1.5	3	0.7
충청북도	48	10.5	14	3.1	3	0.7
충청남도	0	0.0	18	3.9	7	1.5
전라북도	39	8.5	22	4.8	10	2.2
전라남도	0	0.0	10	2.2	3	0.7
경상북도	49	10.7	30	6.5	6	1.3
경상남도	0	0.0	20	4.4	7	1.5
제주특별자치도	0	0.0	1	0.2	1	0.2
총	459	100	459	100	459	100

의 취업 희망자가 317명으로 69.1%를 차지하고 있어 설문응답자의 취업 희망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21〉 참조).

‘근무조건’과 ‘조직문화’가 각각 191건(41.6%), ‘조직의 발전가능성’ 173건(3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3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직무수행 능력

4.3.1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래의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

설문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래의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은 〈표 22〉와 같이 제시하여 모두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보수’와 ‘복리후생’이 각각 322건(7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기발전 기회부여’ 199건(43.4%),

〈표 22〉 미래 직장선택 영향을 주는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	빈도	비율(%)
보수	322	70.2
근무조건	191	41.6
정년보장	44	9.6
조직의 발전가능성	173	37.7
복리후생	322	70.2
조직문화	191	41.6
직급	44	9.6
자기발전 기회부여	199	43.4
해외연수 및 재교육 기회제공	102	22.2
배치부서	80	17.4
기타	5	1.1

설문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래의 직장 내 조직·환경적 기타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적성'이 2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적 성취도 및 보람'과 '만족도', '직장의 성격'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표 23〉 미래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직장 내 조직·환경적 기타 요인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	빈도
개인적 성취도 및 보람	1
만족도	1
적성	2
직장의 성격	1
합계	5

4.3.2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설문응답자가 생각하는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개인적 요인은 〈표 24〉와 같이 제시하여 모두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적성'이 440건(9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업분야 지식 및 기술 수준' 329건(71.7%), '사회적 대우 및 인식' 291건(63.4%), '전공일치여부' 238건(51.9%), '직장과의 거리' 223건(4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가 생각하는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 기타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수'가 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의 만족도' 2명, '근무조건(복지)'과 '부모님과의 상담'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수'를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래의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

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도 있지만, 개인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응답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25〉 참조).

〈표 24〉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	빈도	비율(%)
전공일치여부	238	51.9
교육정도	190	41.4
취업분야 지식 및 기술 수준	329	71.7
개인의 적성	440	95.9
직장과의 거리	223	48.6
사회적 대우 및 인식	291	63.4
동문(지인) 재직 유무	32	7.0
기타	8	1.7

〈표 25〉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	빈도
개인의 만족도	2
근무조건(복지)	1
보수	5
부모님과의 상담	1
합계	9

4.3.3 사서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설문응답자가 생각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356건(7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검색 능력' 236건(51.4%), '컴퓨터활용 능력' 195건(42.5%), '기획력(계획서 작성)' 171건(37.3%), '행정 능력(기안, 보고서)' 127건(2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표 26〉 사서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필요 능력	빈도	비율(%)
정보검색 능력	236	51.4
커뮤니케이션 능력	356	77.6
프레젠테이션 능력	61	13.3
기획력(계획서 작성)	171	37.3
교육 능력	65	14.2
글쓰기 능력	24	5.2
행정 능력(기안, 보고서)	127	27.7
컴퓨터활용 능력	195	42.5
IT기기운용 능력	56	12.2
외국어 능력	69	15
기타	2	0.4

4.3.4 사서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설문응답자 생각하는 사서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에 대해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정신'이 366건(7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책임감' 212건(46.2%), '성실성' 197건(42.9%),

'긍정적인 마인드' 131건(28.5%), '변화에 대한 개방성' 87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4.3.5 사서직 고용현황에 대한 의견
 설문응답자가 생각하는 현재 사서직의 고용

〈표 27〉 사서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필요 인성	빈도	비율(%)
서비스정신	366	79.7
헌신성	57	12.4
긍정적인 마인드	131	28.5
책임감	212	46.2
성실성	197	42.9
이해심	46	10
협동심	21	4.6
인내심	46	10
창의성	42	9.2
추진력	38	8.3
리더십	12	2.6
변화에 대한 도전정신	46	10
변화에 대한 개방성	87	19
친화력	66	14.4
기타	1	0.2

〈표 28〉 설문응답자의 사서직 고용현황에 대한 의견

정규직 일자리가 많다		정규직 일자리가 거의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매우 많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꾸준히 있는 편이다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거의 없다		모르겠다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1	0.2	210	45.8	39	8.5	88	19.2	51	11.1	69	15

〈표 29〉 설문응답자의 사서직 취업 전망에 대한 의견

매우 발전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다		보통이다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		모르겠다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평균	표준 편차
12	2.6	160	34.9	118	25.7	105	22.9	60	13.1	1.91	1.1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규직 일자리가 거의 없다'가 210명(4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는 꾸준히 있는 편이다' 88명(19.2%), '모르겠다' 69명(15%),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거의 없다' 51명(11.1%), '비정규직 일자리는 매우 많다' 39명(8.5%), '정규직 일자리가 많다'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응답자인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은 사서직 고용환경에 대해 정규직 일자리는 거의 없는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꾸준히 있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사서직 고용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28〉 참조).

4.3.6 사서직 취업 전망에 대한 의견

설문응답자가 생각하는 사서직의 향후 취업 전망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다'가 160명(3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118명(25.7%),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 105명

(22.9%), '모르겠다' 60명(13.1%), '매우 발전가능성이 있다' 12명(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응답자인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은 사서직의 향후 취업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29〉 참조).

5. 결론 및 제언

5.1 논의 및 결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자들의 취업실태를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문헌정보학전공 취업자의 전공일치도가 평균 47%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률이 평균 34%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은 학과 순위로는 평균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

우, 비정규직 취업률이 평균 37%,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은 학과 순위가 평균 5위를 차지하여 4년제 대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서직 취업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높은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내용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취업희망 직장 및 준비도에 관한 것과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것이며,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항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출가능분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학생들은 문헌정보학과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매우 폭넓게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진출가능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기록관, 국가수준정보유통기관은 물론 DB구축 업체, 도서관자동화업체, 대행사, 출판, 포털업체 등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설문응답자가 진출하고 싶은 분야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국가도서관, 포털업체, 학교도서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선호하는 직장은 도서관임을 알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의 일자리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설문응답자가 희망하는 업무로는 '문화프로그램 등 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열람 및 대출업무', '참고봉사업무', '수서

업무', '콘텐츠 구축업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은 물론 최근에는 대학도서관에서도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분석된다. 디지털도서관에는 걸로 드러나는 업무만이 아니 콘텐츠 구축업무와 같은 생산적인 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진로지도와 취업멘토링, 인턴십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질문되었다. 진로지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채용정보 제공, 면접준비 특강, 직무적성검사, 진로면담, 자격증 준비반 등의 순이고, 취업 멘토링의 경우 현장 전문가 멘토링, 교수 멘토링, 선후배간 멘토링 순이며, 인턴십(직장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단기인턴(2-3개월[6-9학점]), 사서실습(3-4주[2-3학점]), 장기인턴(6개월[15학점 이하]) 순이다. 이로 보아 학생들은 현장 실무자로부터 실무지향적 교육을 받을 기회를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장 전문가 멘토링'의 프로그램의 개설을 깊이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은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해 80%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0% 이상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 정도였다. 추가 개설을 원하는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과목은 문화프로그램 관련교과목(도서관 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등)이었고 다음으로 전자정보 조직 및 서비스(디지털 및 웹정보원 및 아카이빙 포함), 도서관홍보마케팅, 정보소외계층서비스(장애인 및 다문화서비스 포함), 웹2.0/웹3.0/e커뮤니티, 전문사서론 순

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최근에 여러 문헌정보학과에서 현장적용능력이 높은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 신속하게 교과목을 개정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출 희망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 요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인턴이나 실습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80% 이상이 학업성적, 어학능력, 각종 자격증 취득, 인턴 및 실습, 경력관리를 매우 중요한 취업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초연봉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인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기관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희망연봉의 경우 현재의 낮은 취업률로 인하여 기대치를 상당히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희망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노력과 취업준비도, 그리고 미취업 이유를 분석하였으며, 희망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설문응답자들의 노력분석에서 학업성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 어학준비, 인턴이나 실습, 경력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하고자 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학생들의 취업준비 정도를 보면 오로지 2.2%만 충분하다고 하였고 15%정도가 보통이라 하였으며, 80% 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원하는 직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취업정보가 없어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취업정보에 대한 One-stop 서비스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학생들의 소속대학이 소재한 지역,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 취업 희망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 및 경기도를 거주지로 하는 학생의 비율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국적으로 소속거주지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서울 지역으로의 취업 희망 비율은 48.4%나 되고 경기지역까지 합하면 거의 7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며 특별한 현상을 제외하고 30%의 학생은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의 취업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래의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수와 복리후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기발전 기회부여, 근무조건과 조직문화, 조직의 발전가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개인의 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업분야 지식 및 기술 수준, 사회적 대우 및 인식, 전공일치여부, 직장과의 거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검색 능력, 컴퓨터활용 능력, 기획력(계획서 작성), 행정 능력(기안, 보고서)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사서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으로 서비스정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책임감, 성실성, 긍정적인 마인드, 변화에 대한 개방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열째, 현재 사서직의 고용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으며,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은 사서직 고용환경에 대해 정규직 일자리는 거의 없는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꾸준히 있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사서직 고용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서직의 향후 취업 전망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응답자인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은 사서직의 향후 취업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2.9% 정도가 앞으로 축소될 것이라 응답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2 향후연구제안

최근 국내 도서관 현장에서도 인력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도서관의 인력은 도서관 정보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고, 도서관의 수준은

한 나라의 지적 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서직의 고용실태는 전반적으로 정규직 사서직원의 감축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시장이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서직의 취업실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이를 도서관정책에 반영하여 사서직의 고용확장과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수행된 것이며, 더 나아가 현장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사항 파악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외의 경우 매년 전국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특정 기관에서 국내 40여개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안을 매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한국도서관협회나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에서 주축이 되어 전국 문헌정보학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전문통계기관에서 제시한 취업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취업현황을 분석하고 취업동향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취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지홍. 2006. 국내사서직 취업 현황 분석과 전망: 2003-2005년 통계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7: 111-127.
- [2] 이성숙. 2002.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회진출 동향에 관한 연구: 1996년-2001년 서울·경기지역 4년제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도서관』, 57(2): 39-62.
- [3] 이종문. 2009.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선호 직업 및 준비성 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73-490.
- [4] 이종문. 2012. 문헌정보학전공 졸업자의 취업실태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125-139.
- [5] 정우영, 한승희. 2008. 구인광고 분석을 통한 국내 정보 전문직의 취업동향 분석. 『제15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8-164.
- [6] 정현태, 김지홍, 송재술. 2010. 『사서전문직 인력수급현황 및 고용확충방안 연구: 도서관 연구소 2010년도 자체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7] 조병주, 최정희, 오동근. 2009. 취업력 제고의 관건으로서 개인강점 지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243-259.
- [8] 조인숙, 김문규. 2011. 전문대학 도서관 취업관련자료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211-229.
- [9] 최상희. 2008. 구인광고에서 나타난 정보기술 관련 사서직 자격요건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339-354.
- [10] Andersen, Mark E. 2008. "Taking Business (Librarianship) Public."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13(3): 311-319.
- [11] Combes, B., Hanisch, J., Carroll, M., & Hughes, H. 2011. "Student voices: Re-conceptualising and re-positioning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43(3): 137-143.
- [12] Cullen, John. 2004. "LIS labour market research: implications for management development." *Library Management*, 25(3): 138-145.
- [13] Dalton, P., Mynott, G., & Shoolbred, M. 2000.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within the LIS profession." *Library Review*, 49(6): 271-277.
- [14] Dewey, B. J. 1985. "Job evaluation systems in academic libraries: current issues and trend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6(4): 23-32.
- [15] Dority, G. K. 2006. *Rethinking Information Work: A Career Guide for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Professionals*.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 [16] Maatta, Stephanie L. 2011. "THE LONG WAIT: LJ's 2011 Placements & Salaries Survey reports tight competition in tight times for the LIS class of 2010 with longer job searches resulting in many more temporary or part-time roles." *Library Journal*, 136(17): 20-27.
- [17] Matarazzo, James M., & Clarke, Joshua. 2008. "The Influence of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on the Special Library Job Market." *Information Outlook*, 12(4): 10-16.
- [18] Pors, Niels Ole. 1994. "The Changing Labour Market of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Challenges for Library School Education." *Librarian Career Development*, 2(3): 14-21.
- [19] Shank, John D. 2006. "The Blended Librarian: A Job Announcement Analysis of the Newly Emerging Position of Instructional Design Libraria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7(6): 515-524.
- [20] Shontz, Priscilla K., & Murray, Richard A. 2007. *A Day in the life: Career Options in Library Information Science*.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 [21] Simon, Anoush, & Taylor, Marianne. 2011. "Career history and motivations for choosing LIS: a case study at Aberystwyth University." *Library Review*, 60(9): 803-815.
- [22] Warraich, Nosheen Fatima, & Ameen, Kanwal. 2010-2011. "Employment and Learning Outcomes of LIS Graduates: A Case of Pakistan." *Education for Information*, 28(2-4): 315-324.
- [23] Zhang, Li. 2008. "Foreign Language Skills and Academic Library Job Announcements: A Survey and Trends Analysis, 1966-2006."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4(1): 322-33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Ji-Hong. 2006. "Librarianship Job Analysis and Outlook in Korea: Focusing on 2003-2005 statistics." *Journal of The Korean Private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7: 111-127.
- [2] Lee, Sung-Sook. 2002. "A study on the trend of employment who has a B.A. degree from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SEOGWAN*, 57(2): 39-62.
- [3] Lee, Jongmoon. 2009. "An Analysis on Preferred Occupation and its Readiness to Students in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473-490.
- [4] Lee, Jongmoon. 2012. "A Study on Employment Analysis of Graduates Major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case of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125-139.
- [5] Chung, Wooyoung, & Han, Seunghee. 2008. "An Analysis of Domestic Employment Trends

- of Information Professional Based on Job Qualification.” *The Proceedings of 15th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58-164.
- [6] Jung, Hyun-Tea, Kim, Ji-Hong, & Song, Jea Sul. 2010. *Study on manpower supply and demand situ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strategy*. Seoul: Korea Research Ins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online]. [cited 2013.6.6].
<http://www.nl.go.kr/krili/c2/page2_1.jsp>.
- [7] Cho, Byung-Ju, Choi, Jung-Hee, & Oh, Dong-Geun. 2009. “Personal Strengths Knowledge Is the Key to Employability: Implication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for Its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4): 243-259.
- [8] Cho, In-Sook, & Kim, Moon-Gyu. 2011.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Job-related Collections in College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1): 211-229.
- [9] Choi, Sang-Hee. 2008. “An Analysis on Information Technological Factors in Job Qualifications of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1): 339-354.